

한림대학교 교환학생 수학 보고서

성명/학번		학 번	
학과/전공	경영학과	파견대학	하얼빈공업대학교
파견기간	2025년 1학기	파견국가	중국

본 자료는 다음 참가자들에게 사전 지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자료가 되오니 모든 문항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작성한 것을 복사하거나, **성의가 결여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교환학생 파견 인정, 학점 이관 등의 불이익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 표현 등 자유롭게 친구 및 후배들에게 이야기 하듯, 모든 항목에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서 작성한 후 **글로벌교류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jao33@hallym.ac.kr)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및 이메일 제목을 **"파견대학명_본인 이름_학번"**으로 변경하여 송부 **※마감일: 2025. 6. 30.**

1. 현지대학 신청 과정 (분량: 0.5~1장)

-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후, 현지대학에 지원할 때의 과정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세요.
- 제출한 신청 서류 목록과 각 서류 준비 과정
- 현지대학의 신청 절차 및 전체적인 진행 일정
- 신청 과정 중 가장 어려웠던 점과 해결 방법

한림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최종 합격 통지를 받은 후, 하얼빈공업대학교에 지원하기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선 여권을 갱신했다. 이후 국제교류팀으로부터 하얼빈공업대학교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 링크를 이메일로 전달받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교류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 목록과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얼빈공업대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권 사본과 비자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많은 중국 대학들이 건강검진서를 요구하는 반면, 하얼빈공업대는 해당 서류를 요구하지 않아 비교적 수월했다.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교류대학 측에서 공식 입학허가서와 비자 초청장(JW202)을 발급해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입학허가서에는 학습 기간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JW202 서류에는 내 여권상 영문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비자 신청이 총 두 차례 거절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실수로 보일 수 있지만, JW202 서류는 단기간 내에 수정이 어려운 서류이기 때문에 발급 지연이나 일정 변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나 역시 재발급까지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 상대적으로 준비가 간단한 6개월 단기 비자를 먼저 신청하여 받았다. 단기 비자의 경우 JW202 없이 입학허가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 일치 여부만 확인되면 발급이 비교적 수월하다. 이 과정에서 한림대 글로벌교류센터의 적극적인 중재와 도움 덕분에 비자 발급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었다.

중국 도착 후에는 기숙사 입사를 위한 사전 절차가 진행되었다. 기숙사 입사 전, 학생 정보 확인을 위해 여권을 제시해야 했고, 이후 주말을 이용해 등록 절차가 진행되었다. 등록 과정에는 기숙사 등록비 납부, 보험 가입, 레벨 테스트(구두 시험 후 작문 시험), 그리고 기숙사 출입을 위한 얼굴 등록 등의 절차가 포함되었다. 필요한 서류는 이를 전 단체 채팅방을 통해 공지되었고, 여권 사본은 필수로 제출해야 했다.

전체적으로 신청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비자 발급이었지만, 학교의 도움과 유연한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이후의 과정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2. 파견 전 준비 사항 (분량: 0.5~1장)

- 출국 전 준비한 내용과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비자 발급 과정, 소요 시간, 유의할 점
- 항공권 예약, 현지 도착 후 숙소까지의 이동 방법
- 가져가면 유용한 생필품, 교통카드, 통신 등 현지 생활 준비물

중국 하얼빈공업대학교로의 교환학생 파견을 앞두고 다양한 사전 준비가 필요했다. 특히 비자 발급과 항공권 예약, 현지 생활에 필요한 통신 및 결제 수단 확보 등이 핵심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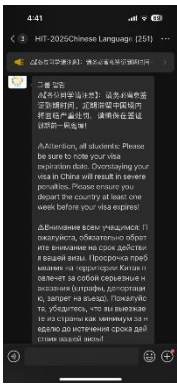
우선 비자는 교환 기간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다. 나는 한 학기만 교환학생으로 체류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X1 비자**가 아닌, 보다 간단한 **6개월 단기 X2 비자**를 발급받았다. X2 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JW202 서류가 필요 없고, 입학허가서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반면 두 학기 이상 교환을 가는 학생은 X1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때는 JW 서류 제출이 필수이고, 발급 절차가 더 복잡하며 비용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든다.

비자 발급에는 약 **7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비자센터에서 서류를 수령할 때는 **오후 3시 이전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나는 비자 신청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최종 제출 전 서류상의 이름 표기, 학습 기간 등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다. 특히 **JW 서류는 수정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확성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항공권은 **트립닷컴(Trip.com)** 앱을 통해 직접 예약했다. 항공권을 고를 때는 기숙사 입실 가능 시간과 도착 후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를 고려해, **낮 시간대 도착 항공편**을 선택했다. 하얼빈공업대학교에서는 **셔틀버스를 따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공항에서 스스로 교통편을 이용해야 한다. 나는 공항에서 **공항버스 티켓을 구매해 기숙사 근처 정류장에서 하차**했다. 도착 후 이동이 처음이라 걱정도 있었지만, 공항 내 버스 안내 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 어렵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거의 모든 결제 수단이 ****QR코드 기반 간편결제(위챗페이, 알리페이)****로 이루어져 있다. 실물 카드나 현금은 대부분의 장소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며, 한국 카드 역시 등록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유니온페이 지원)를 미리 발급받아 위챗페이에 연동**해두었다. 다만, 기숙사 등록금이나 전기세를 납부할 때는 한국 카드가 작동하지 않아, 현지에서 **중국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통신 역시 중요한 준비 사항 중 하나였다. 나는 **한국에서 미리 eSIM을 다운로드**해 간편하게 중국 현지 통신사를 개통할 수 있었다. 현지 도착 후 바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었고, 학교 및 기숙사 관련 안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단체 채팅방 공지사항 방식

3. 수업 정보 (분량: 1장)

- 교환학생으로 수강한 수업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 수강한 과목과 각 과목의 주요 내용
- 수업 분위기 (예: 수업별 학생 수, 발표/과제 중심 등)
- 수업 난이도, 어학 능력 요구 수준

하얼빈공업대학교에서의 수업은 다른 교류 대학과는 상당히 다른 구조로 운영된다. 일반적으로는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신청해 수강하는 방식이지만, 하얼빈공대는 ****학생의 어학 수준(Placement Test 결과)****에 따라 **레벨별 반 편성**이 이루어지고, **수업 또한 고정된 커리큘럼에 따라 제공**된다. 따라서 수업 선택의 자유는 거의 없지만, 체계적인 언어 교육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업은 크게 **종합, 듣기, 말하기, 문화 수업**의 네 가지로 나뉘며, 대부분의 수업이 **문법 위주의 종합 수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종합 수업은 교재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문법과 단어를 학습하고, 실제 문장을 응용하는 훈련을 병행한다. 듣기 수업은 중국어의 다양한 억양과 상황별 표현을 듣고 이해하는 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말하기 수업은 실생활 회화 중심의 표현을 연습하는 시간이다. 문화 수업은 중국의 전통과 사회적 맥락을 배우는 교양형 수업으로, 다소 이론 중심의 진행 방식이다.

수업은 반별로 과제의 수준이나 형식이 달라진다. **낮은 반의 경우**, 과제는 비교적 단순하다. 주로 단어 쓰기, 본문 암송 및 필사, 교재 복습 등의 형태이며,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반면 **C클래스 이상의 중상위 반부터는** 실제 생활과 연결된 과제가 많아지며 난이도가 높아진다. 예를 들어, 현지 옷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오는 과제, 부동산 중개업자를 인터뷰하는 과제, PPT를 제작해 조별 발표를 하는 등의 실용 중심의 과제가 주어진다. 특히 **조별로 현지인을 인터뷰하거나 질문을 준비하는 과제는 학생 간 협업 능력도 요구**되어, 단순한 언어 학습 이상의 경험을 제공한다.

반 구성은 한 반에 **15~20명 내외**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퇴자나 결석자가 많아** 실제 수업에 꾸준히 참여하는 인원은 **7~13명 정도**였다. 수업의 활기나 분위기는 학생 수보다는 **참여도 높은 소수 학생들의 활발한 발언**에 의해 유지되었다. 특히 서구권 학생들은 수업에서 발언하는 것에 익숙해, 다소 적은 인원일지라도 수업은 항상 활기차게 진행되었다.

어학 능력 수준은 **Placement Test를 통해 세부적으로 반이 나뉘기 때문에**, 처음 중국어를 접하는 학생부터 유창한 학생까지 **모두 자신에게 맞는 수준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가장 낮은 반은 **성조와 발음 기호**부터 시작하며, 상급반은 **HSK 6급 준비를 목표로 하는 수준**이었다. 내가 수업을 들은 반에서는 **중국 거주 경험 10년 이상의 학생도 C~D반, 중국 대학 졸업 경험이 있는 학생도 E반**을 수강할 정도로, 상급반은 상당한 난이도를 자랑했다. 반대로 초급반은 정말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잘 마련되어 있어, 언어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하얼빈공업대학교의 수업은 **중국어를 구조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레벨별 수업 구성과 실용 중심 과제** 덕분에 실제 언어 사용 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



다

4. 캠퍼스 생활 정보 (분량: 1~2장)

- 학교 안팎의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주세요.
- 기숙사, 도서관, 식당 등 캠퍼스 시설 및 서비스
- 필드트립, 동아리, 학생회 등 참여한 활동
- 학교 주변 맛집, 쇼핑 장소, 관광지 등 유용한 지역 정보

하얼빈공업대학교에서의 생활은 전통적인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과는 조금 달랐다. 하얼빈공대 어학당 소속으로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 본과생과는 소속이 다르며, 학교의 여러 공식 시설이나 활동에 대한 접근은 다소 제한적이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이나 일부 식당은 본과생 중심으로 운영되어 어학당 학생이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또한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도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해, 본과생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는 매우 적은 편이었다.

캠퍼스 구조도 이러한 생활에 영향을 줬다. 대부분의 본과 수업이 열리는 **본캠에서 약 15분 정도 떨어진 건축과 캠퍼스에서** 어학당 수업이 진행되었고, **기숙사 또한 건축과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기숙사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 걱정이 되었지만, 실제 생활해 보니 오히려 기대 이상으로 쾌적했다. 방은 2인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상 2개, 1층 침대 2개, 그리고 공용이 아닌 개인 화장실**이 있는 구조였다. 단, **여자 기숙사의 일부 방은 두 개의 방이 하나의 화장실을 공유**하는 구조였다. 기숙사 내에는 주방이나 냉장고는 없었고, 세탁기는 층마다 2대씩 비치되어 있었으며, 건조기는 없지만 **별도의 건조실**이 마련되어 있어 큰 불편은 없었다. 무엇보다도 청결 상태가 매우 양호해서 생활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캠퍼스 내 활동이 제한적인 만큼, **타국 학생들과의 교류가 주요한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였다. 하지만 **중국 본과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거나 활동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현지인과의 접촉은 거의 없었다.** 상급반 학생들은 중국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했지만, 중하위 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영어로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 특히 러시아 국적의 학생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그들 대부분이 영어 사용에 능숙해서, 영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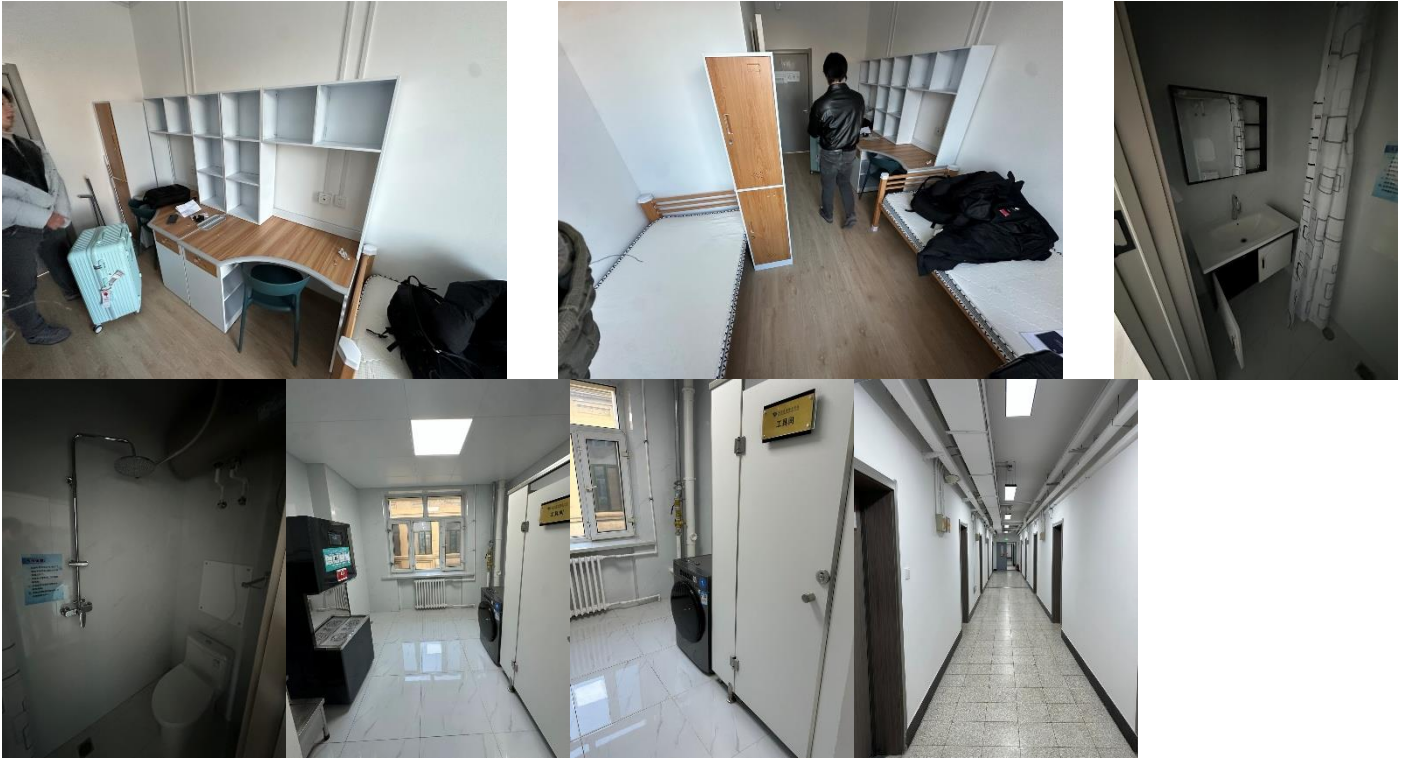
식생활과 주변 인프라는 만족스러웠다. **하얼빈공업대학교 본캠 기준**으로 주변에 식당이 매우 많아 한국 학생이 현지 음식에 어려움을 느끼더라도 생활하는 데에 큰 불편은 없다. 특히 본캠 근처에는 **한식 거리가 형성되어 있어, 한국식 식당이 여러 곳 운영 중**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양씨네 식당'**이었다. 이곳에서는 한국식 짜장면과 해물 짬뽕을 먹을 수 있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게 느껴질 정도로 음식의 퀄리티가 높았다. 다양한 입맛을 가진 학생들도 만족할 수 있는 메뉴 구성이 인상 깊었다.

건축과 캠퍼스 인근도 생활 편의성이 높다. 도보 10분 이내에 **백화점 거리와 대형 마트**가 있어 쇼핑이나 생활용품 구매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 주변에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로컬 식당들이 다양하게 위치해 있어 교환학생으로서 장기간 머무르기에 충분이 편리한 환경이었다.

하얼빈은 겨울이 긴 도시답게, **겨울철 관광지와 축제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대표적으로는 **태양도 공원, 중앙대가, 드래곤 타워,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빙 축제**가 있다. 특히 설빙 축제 기간에는 도시 전체가 얼음 조각과 눈 조각 전시로 가득 차며, 마치 동화 속 마을에 온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길거리 음식으로는 **양꼬치**를 적극 추천하는데, 향신료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다. 추운 날

씨와 함께 먹는 양꼬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하얼빈공대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은 캠퍼스 내부 활동보다는 **기숙사와 외국인 친구들과의 교류, 그리고 현지 탐방**을 통한 경험이 주를 이룬다. 처음에는 제약 사항들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중국에서의 독립적인 생활 능력과 적응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와 새로운 문화 체험을 통해, 한 학기라는 시간이 매우 밀도 높게 느껴졌던 캠퍼스 생활이었다.



(A05 기숙사 건물)



5. 생활비 및 지출 (분량: 0.5~1장)

- 생활비와 지출 패턴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기숙사 종류와 월별/학기별 비용
- 식비, 교통비, 여행비, 기타 개인 지출 등

하얼빈공업대학교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은 비교적 저렴한 생활비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다. 가장 큰 고정 지출 중 하나는 **기숙사 등록금과 보험료**였다. 기숙사 등록금은 **한 학기 기준 약 64만 원**, 보험료는 약 **10만 원** 정도로, 이 두 항목은 출국 전에 미리 납부하였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는 수도세는 따로 부과되지 않았지만, **전기세는 충전식으로 개별 부담**해야 했다. 하얼빈의 기숙사는 **보일러가 전기로 작동**되기 때문에, 난방 사용량에 따라 전기 소모가 상당히 클 수 있다. 하지만 보일러의 **게이지를 낮게 설정**하면 전기세는 월 **1만~1만5천 원** 정도로 조절이 가능하다. 나는 룸메이트와 절반씩 부담

하여 월 평균 오천 원 내외의 전기세를 지불했다. 세탁기 이용은 1회 약 600원 수준이며, 주당 1~2회 이용하면 세탁비도 크게 부담되지 않았다.

생활비 중 식비는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한 항목이었다. 중국은 식사 물가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학교 내 학식을 이용하면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합쳐도 하루 식비가 만 원이 채 들지 않는다. 아침은 뷔페식 구성으로 600원 이내에 해결할 수 있고, 점심과 저녁은 보통 2,000원~3,000원 정도면 충분하다. 학교 밖 일반 식당을 이용해도 한 끼에 3,000원~7,000원 정도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한 달 식비는 평균 10만~15만 원 선으로 매우 저렴하게 유지되었다.

교통비도 큰 부담이 없었다. 버스나 지하철 한 번 이용 시 약 800원 수준이며,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실물 카드나 현금 사용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나는 출국 전 해외 결제가 가능한 유니온페이 기능이 있는 카드를 발급받아 갔다. 그러나 기숙사 등록금, 전기세 등의 일부 결제는 현지 은행 카드로만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추천한다.

기타 개인 지출로는 헬스장 등록, 생활용품 구매, 여행 경비 등이 있었다. 헬스장 이용료는 4개월 기준 약 20만 원이었으며, 만약 본캠퍼스에 거주한다면 본캠 헬스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 생활용품은 첫 달에 세제, 샴푸, 휴지 등 초기 구매 비용이 들어 약 50만 원 후반까지 지출되었고, 이후에는 월 평균 30만 원 증반에서 40만 원 초반 수준으로 지출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학기 중에는 텐진, 상하이 등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교통편으로는 텐진은 기차, 상하이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기차는 좌석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예매를 잘하면 텐진까지 약 10만 원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다. 베이징은 숙소가 텐진보다 저렴하지만 관광지 입장료가 대부분 유료이고, 텐진은 숙박비가 조금 비싼 대신 관광지는 대부분 무료로 즐길 수 있어 각각의 특성이 있다. 상하이 역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데 유리하다. 여행 비용은 3박 4일 기준 1인당 약 3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얼빈에서의 한 학기 생활은 기숙사 등록금과 초기 비용을 제외하면 월평균 약 40만 원 내외의 생활비로도 충분히 여유롭게 유지가 가능했다.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학식과 대중교통이 잘 정비되어 있어 예산 계획만 잘 세운다면 경제적 부담 없이도 교환학생 생활을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이었다.



중양대가, 성소피아 성당



과의 소통, 상하이

기차 여행 중 중국 현지인



톈진 아이

6. 자기평가 (분량: 1~2장)

- 교환학생 경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 교환학생 기간 동안 얻은 점, 성장한 부분
-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본인에게 왜 필요했는지
-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그 극복 방법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중국어 능력 향상**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값진 경험들을 얻을 수 있었다.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다. 이전에는 '문화는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 교환학생 기간을 통해 **비판적 시각과 문화 상대주의의 균형**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기준은 나의 **행동 양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나는 한국의 이미지를 대표한다는 생각에 스스로의 태도나 외모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다. 처음에는 '너무 외적으로 꾸미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도 있었지만, 결국은 **각국의 문화와 일상복 스타일이 다를 뿐이며, 내가 선택한 스타일이 한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는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을 스스로 마케팅하는 법**을 배웠고, 이는 내가 성장한 방향성 중 하나였다.

물론, 가장 큰 도전은 **언어적인 장벽**이었다. 학교 내 행정 절차는 물론,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언어는 항상 높은 벽으로 느껴졌다. 특히 은행 계좌 개설이나 통신사 등록과 같은 업무에서는 **현지인 직원조차 외국인 응대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긴장감이 컸고, 때로는 **달가워하지 않는 태도도 마주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리 해당 업무에 필요한 단어와 표현을 **시나 번역기를 통해 정리하고 숙지해 가는 방식**을 택했다. 물론, 교환학생의 본질적인 목적이 언어 능력 향상이었기 때문에 **번역기 사용은 최소화하고 직접 말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였다**. 상대방이 내가 외국인임을 인지하면 비교적 쉬운 표현으로 말해주는 점도 있어, **의사소통에 대한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었다**.

이번 교환학생 경험은 단순한 언어 수업 이상의 의미를 지닌 시간이었다. 나 자신을 **낯선 환경에 던져 놓고도 적응해가는 능력**, **문화적 기준을 세우고 타인을 이해하는 태도**, 그리고 **자기 표현과 마케팅의 감각**까지 얻게 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며, **앞으로의 글로벌 환경에서도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 [자유 서술 (선택 사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참가를 결정하기까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예: 복수전공, 졸업요건, 어학능력, 재정적 부담 등